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주간)

제 1 독서 : 2사무 5, 1-3

제 2 독서 : 골로 1, 12-20

복 음 : 루가 23, 35-43

순정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루가 23, 42).

제8회 성서주간을 맞이하여

“성서를 제대로 읽읍시다”

- 1992년 성서주간에 -



형제 자매 여러분,
금년은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빚어낸 혼란으로 나라 전체가 열병을 앓았던 한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가 가정을 떠났으며 학생이 공부를 중단하는가 하면,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거나 실종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팽신자가 되어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내와 아내를 그렇게 만든 종교에 대한 원한으로 남편이 교회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잃게 된 사건은 이 열병이 빚어낸 또 하나의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1992년 10월 28일은 어떤 다른 날과 조금도 다름없이 지나갔습니다. 전국에 300개나 된다는 시한부 종말론 교회들과 그날에 잔뜩 기대를 걸었던 10만 명의 추종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들의 허탈한 심정을 어떻게 달래고 있을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개인과 사회에 것처럼 큰 피해를 준 그 열병으로부터 우리 사회, 특히 종교인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의 사태는 무엇보다도, 성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받들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들도 언필칭 성서를 읽고 시한부 종말론을 믿게 되었다는 주장이고 보면, 성서의 이곳저곳을 자기 좋을 대로 골라서 아무 원칙없이 해석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빚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성서 해석 원칙을 밝혀주기 위해서 지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내놓은 「계시현장」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성전과 성서와 교회의 교도권은 하느님의 가장 현명하신 계획에 의하여,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이 성립될 수 없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또한 각각 고유한 방법으로 한 성령의 작용 아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상호간에 연관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음은 명백한 일이다”(제10항).

성서가 성서로서 올바르게 해석되고 신앙생활 안에서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성서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난 2000년의 세월을 통해서 교회가 그것을 해석하고 살아온 역사 혹은 전통,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때그때 등장하는 어려운 문제나 성서 해석상의 난관을 극복하여 유권적으로 해석해줄 사명을 띠고 있는 각 시대 교도권의 가르침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칙이 존중되지 않을 때, “악한 자들과 사기꾼들”(2디모 3, 13)이 성서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사람들을 파멸의 구렁으로 몰아넣는 사태 앞에서도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서의 정확한 해석이 때때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관해서는 성서 자체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더러 있어서 무식하고 마음이 들떠 있는 사람들이 성서의 다른 부분들을 곡해하듯이 그것을 곡해함으로써 스스로 파멸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것을 미리 알고 무법한 자들의 속임수에 빠져들어가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2베드 3, 16-17).

그러므로 성서 대목, 그중에서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현장 제 12항의 가르침대로 교회 안에 보존되어 지금까지 살아 있는 전통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체계의 다른 부분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이러저러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 그것을 절대시하지 않도록 성서를 전체적으로 읽음으로써 그 안에 어떤 일관성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어야”(2디모 3, 17 참조) 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이병호 주교

강론

“자랑스러운 우리의 왕”

박인호 신부 / 교육국장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이전에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었던 사실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모든 민족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루가 1, 32-33) 하고 일러주신 것이다. 그러한 그분은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INRI)’라는 명패를 달고 죽으셨다.

예수님은 한때 사흘 동안이나 굶주렸던 유대인 수천명을 몇 개의 빵을 가지고 배불리 먹이신 일이 있었던 기적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가지가지의 기적을 행하신 전능의 왕이시다. 가난하고 소외당한 부류들과 늘 함께하신 사랑의 왕이셨고 어떤 유혹에도 지지 않은 승리의 왕이셨다.

우주 만물을 없는 가운데로부터 만드시고 또 이를 유지 발전시키는 창조주시오 입법자이시기에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악을 하실 수도 없고 이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선악을 판가름하시어 선을 상주시고 악은 벌주시는 최고의 판관이요 무한히 거룩하시기에 왕이시다. 무엇을 청하든 다 들어주시고 무엇을 구해도 거절함이 없으시기에 자비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울으시고 피곤하시고 굶주리시고 목 말라하시고 일하시고 가난하시고 양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악담과 꾀박을 받으시고 박해와 형벌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살으셨기에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지만 인간으로 태어나 시공의 제약을 받으시고 제일 크신 분이지만 제일 작게 되시고 제일 능하시되 제일 무능하게 사시고 제일 강하시되 제일 약하게 되시고 지혜 자재이시되 무식하게 되시고 제일 착하시되 대역대죄인 취급받으시고 최고의 주권을 가지셨으나 모든 이의 종이 되어 섬기러 오셨으며 제일 풍족하시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시기에 왕이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무(無)로 돌리면서 전부를 차지하신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예수 왕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소리

“오늘날의 우상들”

돈과 권력을 많이 거머쥐려는 싸움으로 사회가 얼룩지고 있다.

이제 화끈 달아오른 대권싸움은 논의로 하더라도 나라를 지키는데 일생을 바치겠다고 군문을 택한 육사 출신의 일부 중견 장교들이 이름도 피상한 사조직들을 만든 것도 끼리끼리 일찍 출세하여 권세를 잡아보겠다는 저의에서 비롯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사병들의 휴가비를 1억여원이나 횡령한 직업군인도 있고 고위장교들이 개입된 폐장비 유출사건까지 들끓나 말쟁이 다.

또 7백여명의 해외 도피자들이 1조원도 훨씬 넘는 남의 돈을 떼어먹고 달아나 외국에서 편안히 지내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그들 중에는 전직 장관과 치안본부장, 신문사 사장, 사찰 주지까지 끼어 있어 세인을 놀라게 했다. 이 나라가 지금껏 요모양 요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알만하다.

돈이 없어 문을 닫는 중소기업들이 수도룩한데 지하에는 세금도 내지 않는 검은 돈이 수십조원이나 굴러다니고 있다니 이 또한 나라의 살림을 어렵게 하는 까닭의 하나일 터이다.

요즘 저질 경쟁으로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광고료 수익을 높이려는 방송국들간의 시청률 경쟁에서 빚어지는 병폐의 하나이다.

“우상은 인간의 허영심 때문에 세상에 생기게 되었고 따라서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없어지게 마련이다”(지혜 14, 14). **진**

숲정이 신책



그릇 혼수 전문백화점
아리랑 그릇
박희제(그레고리오)
이리 허영근 약국 골목
☎ 842-4976

하이패션-리볼리
하이캐주얼-오딧세이
정성희(세실리아)
성락프라자 2층 68호
☎ 71-5509

남문회관
이금용(다 두)
이명숙(마리아)
구성모병원 옆 팔달로
☎ 231-2578

연지 화장품
최선남(모니카)
관동로 사거리 민중서관 앞
☎ 85-2880

잠 간

“대림환(待臨環)”

대림절이 되면 전나무나 소나무 등 상록수 가지나 잎으로 둥글게 환(環)을 만들고 그 위에 4개의 초를 꽂아 대림주간 동안 촛불을 켜놓고, 대림의 뜻을 새기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것을 ‘대림환’이라 한다. 대림환과 그 위의 촛불은 대림절의 중요한 표징으로 상록수는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의 함께 계심을 뜻하고, 둥그런 푸른 나뭇가지 환은 어제, 오늘, 내일의 영원을 상징하며 생명과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4개의 촛불은 대림 4주간을 뜻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어 기다려야 하는 신자들의 생활 자세를 말한다. 또한 4개의 촛불, 즉 그 빛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이 4개의 촛불은 한 주간이 지날 때마다 한 개씩 더 켜져 성탄시기의 절정인 아기 예수의 탄생을 향하여 밝혀진다.

대림환은 어둠과 죽음 대신 빛과 생명이 승리한다는 희망의 상징이다. 십자가가 신앙의 상징이고 촛불이 희망의 상징이라면 대림환은 승리의 상징인 것이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 교회 전례력(달력)으로는 한해가 끝나고 새해의 시작인 대림절(대림 제 1주일-11월 29일)이 시작된다.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이 시기에 집안의 현관이나 응접실, 식탁 등에 ‘대림환’을 장식하여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자. 기다림의 의미를 새기고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자.

삶의 의미를 찾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님 탄생하시도록...

교 구 소 식

1. 교구 법원 : 11월23일(월) 오후4시 교구청.
2. 수녀 연합회 : 11월24일(화) 오전10시 가톨릭센터 3층.
3.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가톨릭 사진가회 사진전시회 : 11월21일-25일 가톨릭센터 3층.
4.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11월27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강사-최용준 신부.
5. 혼인강좌 : 11월29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6. 성서주간 말씀 큰잔치 : 11월22일-28일 성바오로 서원 (0652)252-3398.

※ 축! 영명 : 23일(성클레멘스) 윤양호 신부님.

- **성소모임** 살레시오수도회 : 11월29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2층 (062)55-0332.
- 천주의 성요한수도회 : 수시로 성소 상담, 문의(062)529-0041.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유기농 농장 견학

유기농을 하고 있는 농장을 견학, 방문하여 그분들을 격려하고 무공해 농산물을 구입해주어 보람과 긍지를 안겨줍니다.

요십이 (1007) 김병오



말씀 큰잔치

- 제8회 성서주간 -

92년 11월22일-28일
특별 할인 · 기념품 증정
성바오로 서원
(0652)252-3398

사무장 구함

성실히 봉사할 일꾼을 찾습니다.

-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본당신부 추천서 1통
 - 연락처 : (0653) 54-1827
54-6313
- 천주교 신동 교회

진복유치원 원아모집

- 2년 반-60명 · 1년 반-20명
- 원서교부 일자 : 92.12.1(화)
- 원서접수 일자 : 92.12.5(토)

문의 ☎252-0384

덕진 성당 진복유치원

1993학년도 유치부 원아모집

호남유변종합학원 252-7313
새호남유변종합학원 253-1411
호자유변종합학원 221-8331
원장 유 병 철(베드로)
원감 박 경 애(안젤라)

보석 감정, 디자인, 고급 시계 보석전문점 빛 돌

이 재 호(베드로)
구 정 삼(세실리아)
관동로 사거리 전일관광 옆
☎ 86-8750~1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 영 자(헬레나)

문구 사무용품 도매 전문 남문노트사

원 수 관(야고보)
심 경 이(마리아)
다가동 우체국 앞
☎ (0652) 83-3352
FAX 83-7721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
※ 외딴교우 초청의 밤 행사에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가정방문안내: 24일-중노1반, 25일-중노2반, 26일-중노3반, 27일-중노4반 오후2시, 2. 반대향연대회: 25~27일-예선, 28일-결선, 저녁미사 후, 3. 유아세례: 28일 후3시 사무실에 신청, 4. 모임: ①계대회(24일, 어머니미사 후) ②빈첸시오(26일 전10시30분) 5. 93년 성체유치원 원아모집: 원서배부-노송 성당 사무실, 성체유치원, 기간-12월1~20일, 문의처-84-8408(인보성체수녀원 내) 6. 축! 혼인: 신랑-임덕환(도마) 신부-구미숙, 25일 전11시30, 7. 금주청소: 중노25, 26반, 이주청소: 중노27, 인후1반, □ 2차헌금: 278,450원
□ 지난해 불헌금: 683,790원 □ 교무금: 826,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성당보수공사 헌금: 이승연(30만원) 김성원, 최영순, 구리아(각 20만원) 김해길, 백복순, 강익구, 육종만, 조규설(10만원) 임종길, 백은숙, 이동림, 장세환, 김홍원, 김금자(각5만원) 박금례, 최일순, 문금철, 김옥순, 김용순, 이달순(각3만원) 박금례, 김성자, 익명, 이순녀, 신금남, 이종자(각20만원) 김두환(1만원)
2. 병자봉성체: 27일(금) 3. 유아세례: 28일 후6:30분.
4. 구역미사: 24일 진복2반(후8시)
25일 진복3,4반(후8시)
26일 완산동(후3시)
5. 회합: ①계대회(26일 오전10:30) ②빈첸시오회(28일 오전10시) "축"결혼: 29일 12시30분, 신랑-노시옥군, 신부-임세사리아양
차주전례: 김승훈, 독서-이갑규씨 부부, 봉헌-윤영현씨 가족
□ 지난해 불헌금: 503,320 □ 교무금: 1,199,4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옥
※ 은인을 찾습니다: 수녀원 신축에 따른 각종 가전제품, 주방용품, 융성셀, 침대, 책상, 커튼 등을 기증하실 분.
※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 다음주부터는 가해 시작 대림1주일입니다.
1. 성가대 월례회: 25일(수) 저녁 2. 울드레아: 28일(토) 저녁미사 후, 3.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탈삼미사: 27일(금) 오전10:30분 원의암, 5. 교리교사를 위한 2차헌금: 다음주, 6. 수녀원 신축헌금: 금주봉헌-74만원, 총액-3,775만원, 7. 성서읽기: 시편1장~10장, 8. 청소년사: 천주교 모친Pr, 9. 금주전례: 해설-이옥동, 독서①윤수천 ②김기남, 봉헌-안정만, 박순귀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강덕용 ②최영숙, 봉헌-하태중, 이명수씨 부부.
□ 지난해 불헌금: 278,100원 □ 교무금: 206,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주간) 11월은 위령 성월!
1. 회의: ①사목회-12월2일(수) 오후7시30분 ②자모회-12월2일(수) 오전10시30분 ③반장회-12월6일 공식미사 후 ④구리아-12월6일(일) 오후2시.
2. 알릴: ①초등부 교리교사 성탄연수-11월21일(토)~22일(일) <나바위> ②레지오 연차 총 친목회-12월3일(목) 오후7시(전원 참석바람) ③92년도 가을 판공성사-12월8일(화)~성탄 전까지 평일미사 전후 ※ 일요일, 월요일은 제외, ④판공성사표-12월8일 화요일부터 사무실에서 배부함 ⑤93년도 교무금 신청-판공성사표 배부시에 필히 신청바람.
□ 지난해 불헌금: 709,100원 □ 2차헌금: 252,000원
□ 교무금: 498,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신부님 작풍전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습니다, 지난해-107,000원.
2. 금요일 미사: 불우이웃돕기 위한 헌금.
3. 화요일 교리반 모집합니다: 시간-화요일 저녁미사 후.
4. 청소년사: 1구역 1반, 2반, 3반.
□ 지난해 불헌금: 635,440원 □ 교무금: 1,049,000원

*** 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1. 금주: ①계속관리라형제회 총회(후1시 강당) ②성마리아 꼬미 사용(후2시) ③교부금 납부주일, 2. 전동성서교실: 매주 수요일(오후8시) 3. 대림주일(29일)부터 중·고학생미사를 주일 오후5시에 봉헌(토요일 특전미사는 7시에 봉헌) 4. 감사합니다: 성당세대 앞 히터2대 기증(이백오십만원)-유일사진관: 유영문(가에따노) 5. 차주: ①혼인강좌(전9:30, 가톨릭센터) ②차량축성식(공식미사 후) 6. 글로리아 성가대 발표회: 12월5일(토) 7시30분-교우님들의 많은 격려바랍니다, 7. 추계 판공성사: 12월1일부터 시작.
□ 지난해 불헌금: 1,670,58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김 상 근
1. 연도대회: 24일 후2시, 구역별로 출전 신청바람, 20일까지.
2. 죽은 L.M단원을 위한 연미사: 25일 전11시, 저녁7시30분.
3. 초등부 교사 정기총회: 28일 후4시30분 교사회의실.
4. 세례대상자 면담: 26일 전10시~12시, 후7시 이후.
5. 교회위원 회의: 23일 후6시30분 사제관, 신, 구회원 모두.
6. 가정방문: 24일 전9시-9구역5반(105동) 후3시-9구역6반(106동) 27일 전9시-10구역1반(201동) 후3시-10구역2반(202) 7. 회의: 울드레아-오늘 12시, 성가대-25일 어머니미사 후.
8. 사무장 이취임: 이수영(요셉)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하(다우)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축! 혼배: 오늘 12시, 신랑-오종택, 신부-박광란(크리스티나)
장소-무궁화 예식장, 성가대 협조바랍니다.
□ 지난해 불헌금: 1,009,440원 □ 교무금: 656,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한 병 갑
1. M.B.W교육(복음화 과정): 23일(월)~27일(금)까지, 오후7시30분~10시. *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2. 구역미사: 24일(화)오전-성원골드맨션, 오후-한양윤남 APT.
25일(수)오전-비사벌APT, 오후-동신APT, 26일(목)오전-동남삼정APT1,3동, 오후-화산2(A)
3. 이사오시거나 이사가신 가정은 교적을 정리해 주십시오.
4. 학생회 정기총회: 12월5일(토) 오후6시(교리실)
금주전례: 한병갑, 독서, 봉헌: 서정자, 기세봉, 차주전례: 장병순, 독서, 봉헌: 유경희, 김홍식.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서 석 희
사목회장이 동 삼
※ 연중 제34주일(그리스도왕 대축일) 모임안내
1. 사목회연수회: 21일(토)~22일(일)
2. 구리아: 25일(수) 10시.
3. 유아세례: 다음주일 후4시.
※ 사무원구합-신앙이 충실하고 봉사정신이 많은 미혼여성 1. 이력서 2. 영세증명서 3. 기타 자격증 사본 (타본당일 경우 본당신부님 추천서)
※ 효자일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 지난해 불헌금: 1,058,240원 □ 교무금: 1,718,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의 도
1. 모임안내: ①반석회-공식미사 후 ②성전건축추진상임위원회-공식미사 후 ③반회장1일피정-26(목)10시~17시, 초청강사: 김동준 신부님.
2. 판공성사: 24(화) 저녁7:30 롯데1,2반, 25일(수)저녁 동원반, 26(목)저녁 롯데3,5반, 27(금)저녁 롯데6,7반.
3. 축! ME부부 탄생: 조세일(파비아노)이정금(리나)부부 4. 성탄성가연습: 매주 목요일 저녁8시, 남성을 환영합니다. 차주모임: 요셉회, 사목회.
차주 판공성사: 삼호1,2반, 장승3반, 삼호3,4반, 두현리-한신 3,4반, □ 신축금불헌액: 220,000원
차주전례: 해설-김완관, 독서①이종진 ②정명희 봉헌안내-박윤영 부부, 정경수 부부.
□ 지난해 불헌금: 1,068,580원 □ 교무금: 1,176,000원